

원희룡 장관, 태풍 '힌남노' 대응에 모든 역량 총동원 할 것

- 4일 국토교통 분야 대응상황 점검 후 역량 총동원 대응 주문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4일(일) 오후 1시 세종청사에서 초강력 태풍 제11호 힌남노 관련 도로·철도·항공 등의 대처상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, 국민 불편 최소화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태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, 철도,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 본부는 물론 소속·산하 기관 모두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할 것” 을 주문했다.
 - 먼저, 도로분야에서는 태풍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과 안전조치 이행에 나서는 한편 피해에 대비한 신속한 현장 조치와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,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 - * 현장 점검과 정비를 실시토록 도로관리청에 공문 시행('22.09.01)
 - 경찰서, 소방서,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태풍 피해 발생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태세에 돌입하였다.
 - 주거분야에서는 긴급주거지원 대책반을 구성하여, 태풍 피해로 인한 이재민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.
 - 철도분야에서는 강풍과 폭우에 따른 시설물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재해우려 개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으며,
 - 항공분야는 태풍 예상경로에 위치한 공항은 항공기 및 시설 피해가 없도록 항공기를 소산·결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공항에 체류객 발생 시에는 불편이 없도록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라고 당부하였다.

- 건설분야는 태풍을 인한 건설현장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사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, 이후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지원을 당부하였다.
- 9월 4일 16: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)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로 격상(비상 3단계)하였다.
- 9월 4일 18시 현재, 9월 5일 12~18시 광주, 경남, 전남 등, 9월 5일 18~24시 울산, 부산, 대구 등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이다.
- 현재, 도로·철도·항공 등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